

손님 하나만을 생각하는 자세로
손님의 자리를
비워드립니다



2021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Best Private Bank in Korea)



2021 글로벌 최우수 혁신 PB은행
(Most Innovative Private Bank in the World)

Arcangelo Corelli
Concerto Grosso in G minor,
Op. 6, No. 8 "Christmas Concerto"

코렐리
크리스마스 협주곡 제 8번 사단조, 작품번호 6

Johann Sebastian Bach
Christmas Oratorio
BWV 248, Part 6

바흐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BWV 248, 6부

Ludwig van Beethoven
Symphony No. 9 in D minor,
Op. 125 'Choral'

베토벤
교향곡 제9번 라단조, 작품번호 125 '합창'

송년 음악회

The Sound of 'JOY'

12. 18 Thu 7:30 PM

LOTTE
CONCERT HALL

심포니 S.O.N.G 이사진

BOARD OF DIRECTORS

이사장

문형주

부이사장

안정근

감사

김일규

이사

문형주

안정근

김일규

송백규

이경혜

이주현

김희련

낮은 소리

LOW VOICES

권상준

김태구

백수인

오승훈

윤정웅

장명식

2024~2025시즌 연 회원 후원자 명단

마에스트로 Circle

하나은행

마스터즈 Circle

풍산

말리 Circle

세봉

에프에스티

티에스이

브람스 Circle

디에스케이

GFS

골프존

브루크너 Circle

김석수

신승일

슈베르트 Circle

김창석

이경혜

윤정웅

면사랑

세아제강

영앤진세무법인

베토벤 Circle

엔피코리아

최영애

장원기

송백규

쇼팽 Circle

문형주

안정근

다진

KNW

박선주

모차르트 Circle

코스모엠

김기태

서석호

신영만

전홍구

한수향

한정숙

하이든 Circle

고운영

김종혁

신갑순

이근혁

계양 수치과

이숙희

김성렬

백방미

김은주

이용돈

권영성

이미영

최상욱

김종훈

김영기

한문성

김소정

박진형

유소정

박지윤

장윤정



고맙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 심포니 S.O.N.G



2014년 8월, 지휘자 함신익은 후원자, 음악가들과 더불어
〈Symphony Orchestra for the Next Generation〉의 첫 자를 탄 〈함신익과 심포니 S.O.N.G〉을 창단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활발하게 연주활동을 해온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우리나라 최고의
민간 주도 오케스트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지휘자 함신익은 KBS교향악단, 대전시향 및 미국 유수의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를 거쳐
함신익과 심포니 송 창단 이후에도 유럽, 남미, 아시아 등
다양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며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심포니 송은 뛰어난 연주력, 창의적인 프로그램, 광범위한 사회공헌 연주 등
차세대 오케스트라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발전하며 각계각층의 지지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10년도 우리나라 오케스트라의 발전을 꿈꾸는
함신익과 심포니 송을 응원하는 후원자들이 함께 발맞추어 이뤄갈 것입니다.

MISSION

- 대한민국 오케스트라의 통상적인 운영 체계를 뛰어넘어, 민간기업과 개인들이 후원자인 동시에 주인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 진정한 예술정신을 발휘하여 클래식 음악이 주는 고귀한 메시지를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한다.
- 음악을 통해 따뜻한 기적을 이루고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는 나눔의 오케스트라로 자리하여 지역사회를 활기치게 한다.

VISION

- 뛰어난 기량을 가진 음악가들이 입단하여 프로연주자로서 최대 5년을 활동하면서 다음 세대에 필요한 예술가로 성장하게 한다.
- 국내 최고의 홀에서 진행되는 고품격 '마스터즈 시리즈'를 통한 최상의 연주로 관객의 만족을 추구한다.
- 유익미한 해외 연주를 통해 국제적 트렌드를 리딩하는 선도적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VALUE

- 오케스트라의 효율적 운영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 한국 메세나 협회의 '기업과 예술의 만남'에서 노루홀딩스와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하였다.
- 서울시의 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The Sound of 'Joy'

송년음악회 '기쁨의 노래'

Arcangelo
Corelli
1653-1713



Concerto Grosso in G minor, Op. 6, No. 8 "Christmas Concerto"

콘체르토 그로소 사단조 작품번호 6, 제8번 '크리스마스 협주곡'

- I. Vivace — Grave 활기차게 — 장중하게
- II. Allegro 빠르게
- III. Adagio — Allegro — Adagio 느리게 — 빠르게 — 느리게
- IV. Vivace 활기차게
- V. Allegro 빠르게
- VI. Largo — Pastorale ad libitum 느리게 - 목가풍으로

바이올린 송지원 / 바이올린 강은실 / 첼로 최예지

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



Christmas Oratorio BWV 248, Part VI "Herr, wenn die stolzen Feinde schnauben"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작품번호 248, 6부 "주여, 교만한 원수들이 분노할지라도"

소프라노 김순영 / 메조소프라노 김선정 / 테너 이명현 / 베이스 정인호 / 인천시립합창단

Intermission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Symphony No. 9 in D minor, Op. 125 'Choral'

교향곡 제9번 라단조, 작품번호 125 '합창'

- I. Allegro ma non troppo, un poco maestoso 적절한 빠르기로 조금 장엄하게
- II. Scherzo : Molto vivace 스케르초 : 매우 생기있게
- III. Adagio molto e cantabile 매우 느리게 노래하듯이
- IV. Finale : Presto 피날레 : 빠르게

소프라노 김순영 / 메조소프라노 김선정 / 테너 이명현 / 베이스 정인호 / 인천시립합창단



심포니 송의 연주자들

예술감독	함신익				
바이올린	* 송지원	박진형	강은실	김은지	오하은
	강민선	김민주	김민지	김서연	박연수
	박주현	박지윤	신서니	이예원	이유빈
	이채원	장민주	전상우	정예린	정예은
	지예인	태예원	한예진		
비올라	서예슬	안예림	김용수	김효경	송수민
	유시운	이서원	장윤정		
첼로	최예지	권혜림	박주영	우아람	정다인
	정혜슬	조아진	최 영		
더블베이스	고부현	김가은	김민지	김태현	윤철원
	이현지				
플루트	김성찬	박준형			

피콜로	유민아			
오보에	김소정	김우영		
클라리넷	조종현	이나원		
바순	김윤지	고경호		
콘트라바순	홍윤서			
호른	김효정	조종현	김보람	주혜준
트럼펫	이진규	이혜진	조은별	
트럼본	김주형	김재원	김지섭	
팀파니	정주환			
타악기	고도희	김가원	최수정	
포지티브 오르간	박성현			
크리에이티브 팀	신현숙	구현정	김지원	유소정 이수민

*악장 ※명단은 악장/수석/부수석 외에는 가나다순 정렬입니다.

함신익은 대전시향(2001~2006)과 KBS 교향악단(2010~2012) 예술감독을 역임하고 2014년 함신익과 심포니 송을 창단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를 표방했다. 기회가 필요한 젊은 유망 연주자를 단원으로 선발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체성을 확립했다. 그가 다음 세대에 집중한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에는 ‘뉴월드 심포니’라는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학업을 마친 연주자들을 선발해 2년간 프로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곳에서 실력을 쌓은 뒤 원하는 곳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인데 한국에도 그런 역할을 할 오케스트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단원들이 최대 5년까지 활동할 수 있게 했고 함께하는 동안 되도록 심오한 레퍼토리를 다루고 한 곡을 연주하더라도 제대로 하도록 집중하여 연습하도록 합니다. 단원들은 자신의 희망을 위해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지요.”

지휘자 함신익의 말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사춘기 시절, 인상 깊게 관찰한 선교사들의 행적이나 실행민인 부모로부터 받은 선한 영향력에서 태동되었다 해도 과언 아니다. 가난하지만 신실했던 소년 시절의 경험은 그가 성장해 가며 생성된 보석 같은 사명 의식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함신익은 한국에서의 학업과 군 복무 후, 미국 라이스대학교와 이스트만 음악학교에서 지휘, 피아노, 성악, 이론 그리고 음악사를 배웠다. 그의 열정은 미국의 토양에서 발휘하게 되는데 재학시절 직접 구성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였고, 철학과 지휘 경험을 극대화하며 프로지휘자로서 뿔어 나갈 수 있는 견고한 발판을 구축했다. 심지어 아스펜의 여름 음악 캠프에서도 자신의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등 거침없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쏟아부었다. 30대 초반까지 함신익은 미국에서 학업에 열중하였고 이후 세계 지휘콩쿨에 입상하며

1992년부터 프로 지휘자로 데뷔했다. 미국의 그린베이 심포니, 에블린 필하모닉, 타스카루사 심포니, 밀부룩 오케스트라 등 중·소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며 ‘오케스트라 부흥사’라는 별명을 얻어가며 주목받는 지휘자로 성장했다. 37세부터는 예일대 지휘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3년간 후학양성에 몰두했다. 그가 키워낸 제자들은 유럽, 미국, 아시아의 중요한 오케스트라의 지휘단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의 지도를 받은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세계 메이저 오케스트라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심포니 송의 성장의 비결은 음악을 향한 열정과 진한 연습에서 거두는 실력입니다. 저는 단원들이 자신의 실력을 향상하도록 돕습니다. 단원의 실력이 제고되면 연주의 완성도는 배로 좋아집니다. 심포니 송의 마스터즈 공연에서는 모든 연주자가 열정적으로 연주하기에 모두가 특별하게 부각됩니다.”

실제로 2024년 12월 송년연주회에서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베토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연 시간 내내 기립해 연주를 하기도 했다. 심포니 송의 마스터즈 시리즈는 연주하는 곡은 다르지만 언제나 특별함을 유지한다. 지휘자의 통찰력에 따른 연주자들의 열정이 그때그때마다 새롭고 유니크하기 때문이다. ‘더 왕’ 프로젝트로 전국의 문화예술 소외자를 위해 연주로 공헌하는 것도 심포니 송의 자랑 중 하나다. 더 왕 프로젝트로 음향이 완벽하게 구성된 실내에서만 제 역할을 한다는 기존 오케스트라의 편견을 무너뜨리며 클래식 장벽을 낮춘 결과도 거둘 수 있었다. 함신익과 심포니 송의 다음 10년은 지금까지의 10년보다 환경은 더 어려워지겠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고자 한다. 마스터즈 시리즈 공연은 더욱 특별한 레퍼토리로 관객을 찾을 것이고 지역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공연도 횟수와 퀄리티 또한 제고할 것이다. 지휘자 함신익은 2025년도 음악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자 한다. 예술가로서 자신의 전부를 청중에게 전달하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음악이 모든 것인 함신익, 그가 심포니 송과 함께 펼칠 예술가 정신을 기대한다.



Concerto Grosso in G minor, Op. 6, No. 8 “Christmas Concerto”



송지원 ————— 바이올린

- 서울대 음대 학·석사, 필른 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수료
- 세계일보콩쿠르 대상, KBS신인음악콩쿠르 등 국내외 주요 콩쿠르 수상
- 현 함신익과 심포니 송 악장

강은실 ————— 바이올린

- 드레스덴 국립음대 학·석사 및 오케스트라 전문연주자 과정 수료
- 예진·음악교육신문사·Philadelphia 콩쿠르 1위
- 현 함신익과 심포니 송 바이올린 부수석

최예지 ————— 첼로

- 서울대 음대 학사,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석사,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전문연주자 과정 수료
- 서울음악콩쿠르·세계일보콩쿠르 1위, 성정음악콩쿠르 2위
- 현 함신익과 심포니 송 첼로 수석

- Christmas Oratorio BWV 248, Part VI “Herr, wenn die stolzen Feinde schnauben”
- Symphony No. 9 in D minor, Op. 125 ‘Choral’



김순영 ————— 소프라노

-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 석사 졸업 및 Konzert Examen 과정 수료
- 제네바 국제콩쿠르, 동아콩쿠르 입상
- ‘라 트라비아타’, ‘마술피리’, ‘카르멘’ 등 국내외 오페라에서 주역으로 활동
- 한세대학교 음악대학 초빙교수, 세종대학교 음악대학 외래교수 역임

김선정 ————— 메조소프라노

- 독일 함부르크 국립음대 오페라과 졸업
- ‘카르멘’, ‘보체크’, ‘신데렐라’ 등 국내외 오페라에서 주역으로 활동
-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및 전문 연주가 활동

이명현 ————— 테너

- 독일 함부르크 음악대학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독일 노이에슈티멘 콩쿠르, 칠레 루이 시갈 콩쿠르 1위
- 독일 SWR 방송국 젊은 오페라스타 우승
- 23·24 시즌 독일 메클렌부르크 주립극장, 코트부스 주립극장 주역 가수로 출연

정인호 ————— 베이스

- 서울대 음악대학 졸업
-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준우승,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5위
- 독일 프랑크푸르트 극장, 벨기에 리에주 극장, 프랑스 리옹 극장 등 세계 각지의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



인천시립합창단

인천시립합창단은 1981년 창단 이후, 1995년 윤학원 전 예술 감독과 함께 재창단하며 세계합창연맹(IFCM)과 미국지휘자협회(ACDA) 컨벤션 등 세계 주요 합창 축제에 초청되어 전 세계인들에게 커다란 감동과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며 인천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성장하였다. 인천광역시를 대표하는 인천시립합창단은 시민들에게 감동있고 수준 높은 합창음악을 제공하고, 300만 인천시민이 합창으로 하나가 되는 <인천합창대축제> 등을 통하여 지역의 합창저변 확대와 수준 향상에 힘쓰고 있다. 2024년 1월, 윤의중 지휘자가 제8대 예술감독으로 취임하며 더욱 세계적인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인천시립합창단은 2025년 1월, 인도네시아 반둥 합창 심포지움에 초청되는 등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무대에 합창음악과 인천시립합창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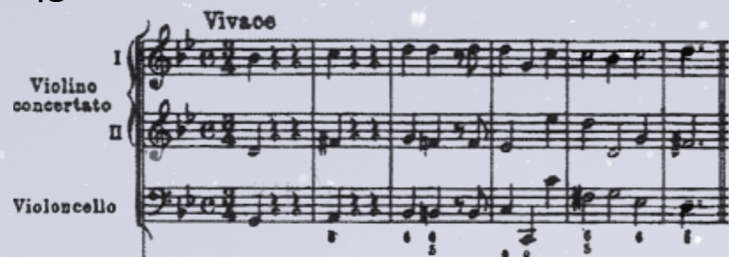
Corelli

Concerto Grosso in G minor, Op. 6, No. 8 “Christmas Concerto”

코렐리 — 콘체르토 그로소 사단조, 작품번호 6, 제8번 ‘크리스마스 협주곡’

이 곡은 코렐리의 <Op. 6> 12곡 중 제8번으로, 출판 명에는 ‘Fatto per la notte di Natale(성탄의 밤을 위하여)’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합주 협주곡 특유의 콘체르티노(소편성)와 리피에노(전편성)의 대비를 통해 바로크적 미학과 장중함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며, 리토르넬로(ritornello) 형식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마지막의 목가적 파스토랄(Largo-Pastorale)로 작품의 정서를 완결짓는다. 연주 시 악기 배치와 음색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콘체르티노와 리피에노의 대비를 통해 리듬적·선율적 쾌감을 극대화한다.

1악장



활기찬 시작과 장중함의 대비가 성탄 전야의 설렘과 장엄함을 담아낸다.

2악장

콘체르티노와 리피에노가 우아하게 대화를 주고받는다.

3악장

느린 서정성과 빠른 생동감이 교차하며 평온한 정서를 회복한다.

4&5악장

밝고 기민한 악장들로, 콘체르티노와 리피에노의 대비를 통해 리듬적 활력과 기교적 쾌감을 극대화한다.

6악장



크리스마스 협주곡의 핵심으로 12/8박자의 온화한 흐름과 다정한 선율이 성탄의 평화를 깊이 있게 전한다.

This concerto is the eighth of Corelli's twelve Opus 6 concerti, published under the subtitle “Fatto per la notte di Natale (for the Night of Christmas)”. By contrasting the concertino (small ensemble) with the ripieno (full ensemble), Corelli achieves the rich textures and striking contrasts characteristic of the Baroque style. While maintaining the structure of the ritornello form, the concluding pastoral (Largo – Pastorale) provides a gentle and expressive resolution. In performance, the arrangement of instruments and clarity of timbre are essential, and the contrast between concertino and ripieno delivers both rhythmic vitality and melodic delight.

1st Movement

The contrast between a lively start and solemnity captures the excitement and grandeur of Christmas Eve.

2nd Movement

The concertino and ripieno engage in an elegant musical dialogue.

3rd Movement

Alternating between slow lyricism and lively sections, the movement restores a sense of tranquility.

4th, 5th Movement

Bright, quick movements that maximize rhythmic vitality and technical pleasure through the contrast between the concertino and ripieno.

6th Movement

The heart of the work; its gentle 12/8 meter and warm melody profoundly convey the peace of Christmas.

Bach

Christmas Oratorio, BWV 248, Part VI “Herr, wenn die stolzen Feinde schnauben”

바흐 —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작품번호 248, 6부 “주여, 교만한 원수들이 분노할지라도”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는 1734년 라이프치히에서 성탄 기간에 연주된 여섯 개의 칸타타 형식으로 연주된 대규모 작품이다. 제6부는 새해 첫날을 위한 음악으로,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원의 메시지가 절정에 이르는 부분이다. 기쁨과 경외, 인간의 불안과 신앙의 확신이 교차하며, 바흐 특유의 목관·트럼펫·현악 앙상블의 색채가 생생하게 살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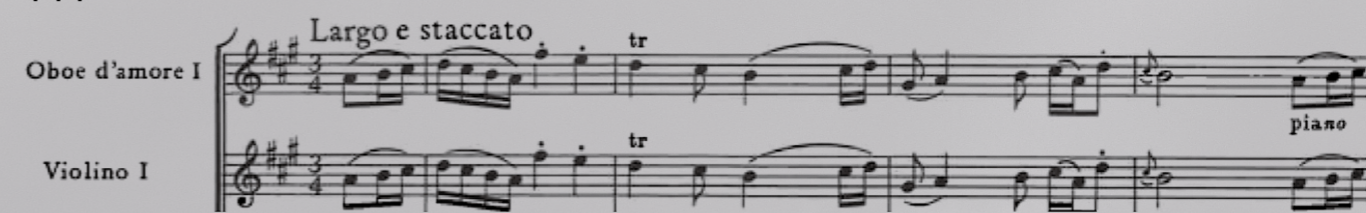
합창 “주여, 교만한 원수들이 분노할지라도”

강한 리듬과 장엄한 화성으로 신적 보호에 대한 확신을 상징한다.

레치타티보

테너와 베이스가 성탄의 의미와 내적 갈등을 성찰적으로 서술한다.

아리아



오보에와 바이올린의 부드러운 대화가 성탄의 빛과 위안을 표현한다.

합창

합창과 독창이 결합되어 신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마음을 담는다. 성가적 장엄함이 특징이다.

Bach's Christmas Oratorio is a large-scale work premiered in Leipzig in 1734, consisting of six cantata-like sections performed throughout the Christmas season. Part VI, intended for New Year's Day, brings the nativity and salvation message to a climax. Joy, awe, human anxiety, and faith intertwine brought to life through Bach's characteristic orchestration of winds, trumpets, and strings.

Chorus

“Herr, wenn die stolzen Feinde schnauben”

Strong rhythms and majestic harmony symbolize the assurance of divine protection.

Recitative

Tenor and bass contemplatively narrate the meaning of Christmas and inner conflict.

Aria

A gentle dialogue between oboe and violin expresses the light and consolation of Christmas.

Chorus & Final Chorus

Combined choral and solo expressions of praise and gratitude conclude the work with the joy and sanctity of Epiphany.

Bach

Christmas Oratorio, BWV 248

Beethoven

Symphony No. 9 in D minor, Op. 125 ‘Choral’

베토벤 — 교향곡 제9번 라단조, 작품번호 125 ‘합창’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1824년 초연)은 단순한 걸작을 넘어 인간 정신과 이상을 음악으로 선언한 작품이다. 청력을 잃어가던 베토벤이 자신의 철학적 신념을 음악으로 집약한 결과물이다. “인류의 형제애”라는 대담한 메시지는 프리드리히 실러의 시 「환희의 송가」를 합창에 도입함으로써 음악사에서 혁명적 전환을 이루었다. 작품은 네 개의 악장이 하나의 거대한 구조를 이루며, 어둠에서 빛으로, 혼돈에서 조화로 나아가는 여정을 담아낸다.

1악장



호른과 현악기가 5도 간격의 “라”와 “미” 음을 연주하며 긴장감 있게 첫 막을 연다. 이 5도 음정은 화성학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화성 진행의 기본 중의 기본이 된다. 마치 혼돈 속에서 세계가 생성되듯, 불확실한 음형에서 서서히 주제가 모습을 드러낸다. 대위적 발전을 통해 강렬한 힘이 축적되며, 음악은 점차 장엄한 규모로 확대된다. 대조적 제2주제는 한층 더 평온하지만, 깊은 긴장을 품고 있으며, 전체 악장은 인간 정신의 투쟁과 극복이라는 베토벤적 주제를 웅장하게 그려낸다.

2악장



스케르초 악장은 베토벤 특유의 치밀한 리듬 감각이 돋보인다. 팀파니가

Beethoven's Symphony No. 9, premiered in 1824, transcends mere musical mastery to proclaim the human spirit and ideals through sound. Composed while Beethoven was losing his hearing, the work distills his philosophical convictions into music. Its bold message of “universal brotherhood” is realized through the incorporation of Friedrich Schiller's poem Ode to Joy in the choral finale, marking a revolutionary milestone in music history. The symphony's four movements form a grand arc, guiding the listener from darkness to light, and from chaos to harmony.

1st Movement

The movement opens with a tense introduction, featuring the horn and strings playing the pitches A and E a perfect fifth apart. This interval of a perfect fifth forms the fundamental core of harmony, serving as the most basic element for all harmonic progression. Like the creation of the world out of chaos, the main theme gradually emerges from the initial, uncertain musical figure. A powerful energy is accumulated through contrapuntal development, and the music progressively expands into a grand scale. The contrasting second subject is notably more tranquil but harbors a deep underlying tension. The entire movement magnificently portrays the quintessential Beethovenian theme of human spiritual struggle and ultimate triump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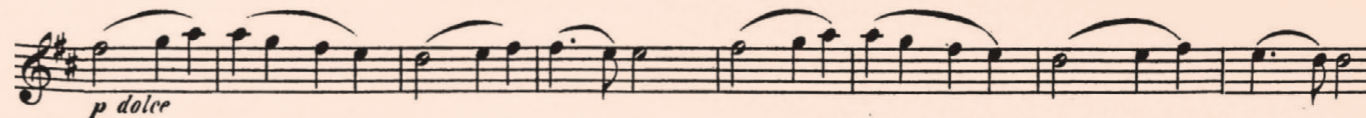
2nd Movement

The scherzo showcases Beethoven's signature rhythmic precision. The timpani

제시하는 dactyl(시에서 쓰이는 운율의 형태로 긴 음절 뒤 짧고 약한 두 음절이 뒤따른다.)의 리듬은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이며, 이를 중심으로 한 강렬한 악기들의 반복적 패턴이 역동성을 만들어낸다. 대비되는 트리오는 목가적 선율로 잠시 숨을 고르게 하며, 다시 스케르초의 힘찬 에너지로 회귀한다.

3악장

서정성과 관조가 중심이 되는 악장이다. 현악의 부드러운 흐름과 목관의 따뜻한 선율이 서로를 감싸며, 베토벤의 내면적 정서가 아름답게 드러난다. 느린 변주 형식의 전개는 인간적 고뇌와 경건한 희망의 순간을 세밀하게 보여주며, 아득한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는 듯한 고요한 감동을 남긴다.



4악장

마지막 악장은 거대한 논쟁처럼 시작된다. 이전 악장들의 선율이 회상되나 곧 부정하며 새로운 주제가 등장할 준비를 한다. 첼로와 베이스가 제시하는 서곡적 레치타티보 이후, 유명한 “환희의 송가” 주제가 단순한 선율로 조용히 시작되어 점차 장대한 합창으로 확장된다. 솔리스트와 합창, 오케스트라는 형제애의 메시지를 힘차게 노래하며, 음악은 인간 정신의 자유와 희망을 상징하는 황홀한 결말로 치닫는다.

introduce a dactylic rhythm (long syllable followed by two short weak syllables, as in poetic meter), creating tension and propulsive energy. Repetitive orchestral patterns intensify the momentum, while the contrasting trio offers a pastoral respite before the scherzo's vigorous energy returns.

3rd Movement

This movement is characterized by lyricism and contemplation. Gentle string lines intertwine with warm woodwind melodies, revealing Beethoven's inner emotional world. The slow variations carefully explore

human suffering and sacred hope, leaving the listener with a sense of profound, timeless serenity.

4th Movement

The finale begins like a monumental debate, recalling motifs from the previous movements only to reject them and prepare for new material. Following an introductory recitative by the cellos and basses, the famous Ode to Joy theme emerges quietly in a simple melody, gradually expanding into a magnificent choral statement. Soloists, choir, and orchestra unite to proclaim the message of universal brotherhood, culminating in a transcendent conclusion that celebrates the freedom and hope of the human spirit.

Beethoven

‘Choral’

2026 합신익과 심포니 송 MASTERS SERIES



말리의 “부활”

02. 07 SAT 17: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GUSTAV MAHLER
Symphony No. 2 'Resurrection'

이윤정, 김선정, 국립합창단, 인천시립합창단

NIKOLAI RIMSKY-KORSAKOV
Russian Easter Festival Overture

FRÉDÉRIC CHOPIN
Piano Concerto No. 1 피아노, 송은채

NIKOLAI RIMSKY-KORSAKOV
Scheherazade

림스키-코르사코프 “세헤라자데”

03. 12 THU 19:30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

05. 30 SAT 19:30



DMITRI SHOSTAKOVICH
Festive Overture

SERGEI PROKOFIEV
Piano Concerto No. 2 피아노, 김규연

DMITRI SHOSTAKOVICH
Symphony No. 5

베르디 “레퀴엠”

06. 16 TUE 19:3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GIUSEPPE VERDI
Requiem

오미선, 김선정, 김동원, 사무엘 윤, 부천시립합창단, 인천시립합창단

MODEST MUSSORGSKY
Night on Bald Mountain

MAURICE RAVEL
Piano Concerto 피아노, 유성호

MODEST MUSSORGSKY / MAURICE RAVEL
Pictures at an Exhibition

무소르그스키와 라벨 “전람회의 그림”

09. 12 SAT 19:30



차이코프스키 스페셜

10. 24 SAT 19:30



PYOTR TCHAIKOVSKY
Violin Concerto 바이올린, 양정윤

PYOTR TCHAIKOVSKY
Symphony No. 4

객원지휘, Darrell Ang



LUDWIG VAN BEETHOVEN
Egmont Overture

JOHANNES BRAHMS
Piano Concerto No. 2 피아노, 유영욱

JOHANNES BRAHMS
Symphony No. 1

브람스 페스티벌

11. 16 MON 19:30



송년음악회 “합창교향곡”

12. 29 TUE 19:3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LUDWIG VAN BEETHOVEN
Symphony No. 9 'Choral'

오미선, 김선정, 이명현, 양준모, 국립합창단



회원권 구매 특별할인

2026 시즌패스

2026 Season Pass

Season Pass

Special Discount

조기구매 할인 혜택

※ VIP석은 100석 한정

12월 31일까지 구매시	VIP석	960,000원	→	720,000원
	R석	800,000원	→	600,000원
	S석	560,000원	→	420,000원
	A석	400,000원	→	300,000원

25%

티켓 구매 요령

① 전화 구매

02-549-0046

② e-mail

management@symphonysong.com

③ 우편 제출

서울 서대문구 백련사길 39

(홍은동,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3층 심포니 송

1월 31일까지 구매시	VIP석	960,000원	→	768,000원
	R석	800,000원	→	640,000원
	S석	560,000원	→	448,000원
	A석	400,000원	→	320,000원

20%

학생 특별 지원 할인
100석 한정
(학생 인증 필수)

8회	A석	400,000원	→	200,000원
	B석	240,000원	→	100,000원



시즌패스

성명

연락처

E-mail

등급 ☐ R석 ☐ S석 ☐ A석

수령 방식 ☐ 현장수령(추천) ☐ 자택 또는 회사 주소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6-49104 (심포니송)

심포니 S.O.N.G 법인/개인후원 안내



구분	연회비	예우 및 혜택	공통 예우
마에스트로	3억 원 이상	· 기업연주* 6회 제공 · 2025년 시즌패스 - R석 40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 소식 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 명단 게재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마스터즈	1억 원 이상	· 기업연주* 2회 제공 · 2025년 시즌패스 - R석 30매 증정	· 소장용 공연 실황 음원 영상 증정 · 마에스트로 합신의 기업방문 강연 · 마스터즈 시리즈 프로그램 북 전면 광고
말러	5,000만 원 이상	· 기업연주* 1회 제공 · 2025년 시즌패스 - R석 20매 증정	· 추가 구매 티켓 10%할인 * 기업연주: 심포니 S.O.N.G의 실내악 그룹이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에서 연주
브람스	3,000만 원 이상	· 실내악 연주 2회 제공 · 2025년 시즌패스 - R석 12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소식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 명단 게재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브루크너	2,000만 원 이상	· 실내악 연주 1회 제공 · 2025년 시즌패스 - R석 8매 증정	· 소장용 공연실황음원영상 증정 · 추가구매티켓 10%할인 * 하이든은 제외
슈베르트	1,000만 원 이상	· 실내악 연주 1회 제공 · 2025년 시즌패스 - R석 4매 증정	
베토벤	500만 원 이상	· 2025년 시즌패스 - R석 2매 증정	
쇼팽	300만 원 이상	· 2025년 시즌패스 - S석 2매 증정	
모차르트	100만 원 이상	· 2025년 시즌패스 4회 - A석 2매 증정	
하이든	1만 원 이상		



- 문의

심포니 S.O.N.G 경영지원팀 02)549-0046
-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4-73904 (예금주: 심포니송)
- 후원회

수시 가입 가능
- 후원금액은 월 1만원부터 매월 분할 자동이체 납부가능
- 후원금에 대한 개인 소득공제 및 법인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Enabling Tomorrow's Semiconductor

www.tse21.com

@life.tse

TSE

... FA & BIO분야 ...

글로벌종합 기술기업

이차전지장비, 디스플레이장비, 리니어시스템, 물류자동화 로봇, 산업용 및 의료용 레이저
대한민국 장비산업분야 및 바이오 보툴리눔독소제 미래에 새로운 기준을 만듭니다.

GLOBAL GOLF PLATFORM COMPANY GOLFZON NEWDIN GROUP

골프존뉴딘그룹은
‘새로움과 즐거움, 유익함의 창출’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
글로벌 골프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웃·사회와 함께 동행하며
늘 새로운 골프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GOLFZON NEWDIN GROUP



HANDIUM

PANAMA GEISHA

콜드브루 커피원액 출시

‘신의커피’로 불리는 최상급 파나마 게이샤 커피를
핸디엄 콜드브루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겨보세요.



PANAMA
GEISHA



더 알아보기

HANDIUM

핸디엄은 자체 개발 기술로 프리미엄 커피 원액을 제조하는 콜드브루 전문 브랜드입니다.



콜드브루 커피원액
케냐



콜드브루 커피원액
에가체프



에스프레소 커피원액
다크 블렌드



에스프레소 커피원액
디카페인

온라인 스토어

www.handium.co.kr

고객센터

1599-2681 (홈페이지 실시간 대화)

주요 판매처

이마트, 쿠팡, 비마트(배달의 민족), 카카오톡 선물하기

HANDMADE FOR YOUR PREMIUM

Wizard7

최적의 사이트 구축·운영·관리를 제공합니다!

풍부한 기능 탑재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각종 OS·DB·브라우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본기능

- HTML5(웹표준)
- 반응형웹 대응
- WYSIWYG 에디터
- 편집 모드/사용자 모드
- 강력한 권한 설정
- 파일관리
- 웹 접근성
- 다국어 지원
- 높은 보안
- 메뉴 관리
- 백업/복구
- 워크플로우

※기본 기능의 일부를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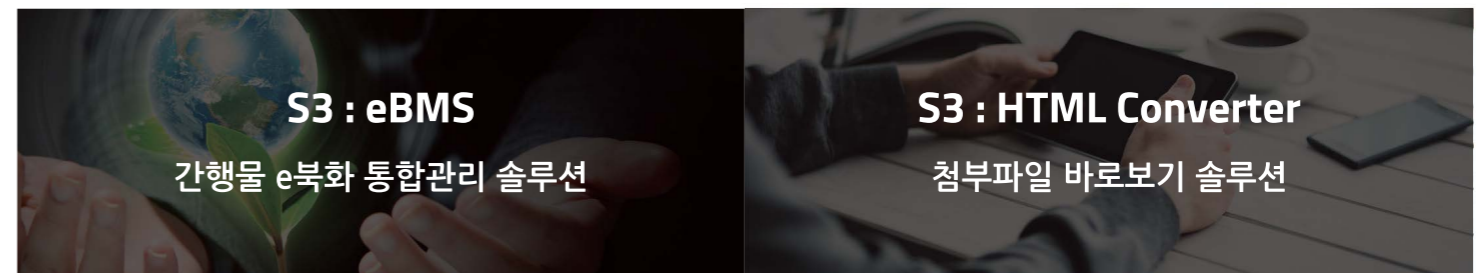
모듈

필요한 기능을 선택하여 자유자재로 사이트 구축

- 게시판/뉴스
- 이미지 슬라이드
- 인물 소개
- 폼빌더
- 일정관리
- 규정관리
- 연혁 관리
- 회원정보 수정

※상기 외 모듈의 다양한 기능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홈페이지를 위한 추가 솔루션



S3 : eBMS

간행물 e북화 통합관리 솔루션

S3 : HTML Converter

첨부파일 바로보기 솔루션



서울 금천구 가마산로 96 1510(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8차)
메일문의 : shlee012@k2web.co.kr / 상담시간 : 09:00 ~ 18:00

02-575-7721